

한국대학생방일단 제 1 ~ 2 단 (초빙) 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JENESYS 의 일환으로 한국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을 초빙하여 ‘일본의 평화를 위한 활동과 한일교류’ 이라는 주제 아래 각종 시찰, 강연 청강,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한일 간의 상호이해 촉진과 신뢰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학습 (온라인) 한국의 대학생 등 80 명
 초빙 (오프라인) 한국의 대학생 등 80 명

【방문지】 사전학습 (온라인) 도쿄도 (東京都) 80 명
 초빙 (오프라인) 도쿄도 (東京都) , 가나가와현 (神奈川県) , 나가사키현 (長崎県) , 사가현 (佐賀県) , 후쿠오카현 (福岡県) 80 명

【일정】

■ 사전학습 (온라인) :

5 월 27 일 (토) 방일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 참가자의 대외 발신

■ 초빙 (오프라인) :

6 월 25 일 (일) 나리타 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6 월 26 일 (월) **【강의】** ‘최근의 한일관계’ 한일:비슷하지만 다른 사회
 -서로를 알기 위한 첫 걸음-

【예방】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시찰】 고 이수현씨 추도·현창비를 포함한 신오쿠보 (新大久保) 필드워크

6 월 27 일 (화) **【학교방문·교류】** (제 1 단) 페리스여학원대학 (フェリス女学院大学) , (제 2 단) 쇼와여자대학 (昭和女子大学) , 나가사키현으로 이동

6 월 28 일 (수) **【예방】** 나가사키현청

【강의】 ‘평화를 향한 노력, 한국과의 교류’

【시찰】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강의】** 피폭체험

【시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평화공원

6 월 29 일 (목) **【학교방문·교류】** (제 1 단) 나가사키대학 (長崎大学)
 (제 2 단) 나가사키외국어대학 (長崎外国語大学)

6 월 30 일 (금) 사가현으로 이동, **【시찰】** 수에야마 신사, 사가현립 나고야성 박물관, 특별사적 나고야성터 및 진영터, 후쿠오카현으로 이동, 성과보고회 (방일 성과 및 귀국 후 활동 계획 발표)

7 월 1 일 (토) 후쿠오카 공항 출국

2. 프로그램 기록사진



2023년 6월 26일 【강의】
‘최근의 한일관계’ 한일: 비슷하지만 다른 사회-서로를 알기 위한 첫 걸음-



2023년 6월 27일 【학교방문·교류】
페리스여학원대학



2023년 6월 27일 【학교방문·교류】
쇼와여자대학



2023년 6월 28일 【강의】 나가사키현청
‘평화를 향한 노력, 한국과의 교류’



2023년 6월 28일 【시찰】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2023년 6월 28일 【강의】
피폭체험 강연



2023년 6월 29일 【학교방문·교류】
나가사키대학



2023년 6월 29일 【학교방문·교류】
나가사키외국어대학



2023년 6월 30일 【시찰】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
특별사적 나고야성터 및 진영터



2023년 6월 30일 【성과보고회】

3. 참가자 소감 (발체)

◆ 한국 대학생

강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 특징에 따른 의식 차이에 대해 알아가며 여러 한일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입장차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한국 대학생

일본 학생들과 하나의 주제로 내용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각자의 문화를 만들었으며,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게 남았다.

◆ 한국 대학생

일본 학생들을 만났는데 가장 놀라웠던 점은 바로 다들 한국어를 너무 잘 하신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일본어로만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어를 너무 잘 하셔서 두 개의 언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일본의 대학교를 처음 방문해 본 것인데 대학교 안에 자습 공간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았다. 나중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이런 곳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 **한국 대학생**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을 방문하여 1945년 당시의 피해규모와 원폭의 크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실제 13살의 나이에 피폭을 경험하신 마루타 가즈오 님의 강연을 들어보니 그 현장은 더욱 무시무시했을리라 생각이 들었다. 평화공원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이어지는 애도의 물결과 평화를 바라는 간절함을 느꼈다.

◆ **한국 대학생**

원폭자료관에서 원폭이 떨어지기 전후의 상황과 피해 현황, 자료들을 보며 원폭의 참혹한 실상을 알 수 있었다. 중학생 때 피폭 당하신 분의 피폭 체험담을 듣고 다시는 인류 역사에 원폭이 사용되어서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4. 일본측 소감 (발체)

◆ **강의 강사**

일본과 한국은 서로 비슷한 문화의 나라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만큼 다른 점까지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쉬운데 양국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신의 관점에서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맞물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알고 나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경험 등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일의 경험은 ‘생생한 일본’을 알게 되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나갔으면 합니다.

◆ **나가사키현청 관계자**

나가사키현은 일본에서 가장 한국과 가까우며 예로부터 교류해 왔습니다. 일본이 해외와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었던 17세기, 18세기 무렵에도 나가사키현의 쓰시마만만큼은 한국에 개방된 창구로서 조선통신사를 맞이하였으며 현재는 한일교류행사 등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이 좋은 이웃으로, 좋은 파트너로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나가기 바랍니다.

◆ **방문 학교 관계자**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는 지금까지 불행한 역사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대등한 파트너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토대로 젊은이들의 상호 이해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방문 학교 학생**

여행으로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는 적은 없어서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어학 학습에 동기 부여도 되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같은 세대로 서로 같은 취미와 고민을 가지고 있어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보도 기사 등

	
<p>2023년 6월 26일 (NAVER Blog)</p> <p>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이 서로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다. 전에는 일본인의 보편적인 성향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이유를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p>	<p>2023년 6월 26일 (NAVER Blog)</p> <p>이수현씨는 2001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돌아오지 못하셨다. 이후 한일 우호의 상징적 인물로 대표되면서 오늘날에도 그를 기억하는 일본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의 용감한 영웅적인 태도와 바른 정신을 본받고 싶다.</p>
	
<p>2023년 6월 28일 (instagram)</p> <p>피폭 체험 강연을 들었다. 직접 피폭을 겪은 기억을 생생하게 들었다. 처음에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지만 점점 메모를 쓸 수 없었다. 메모에 담기에 내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다. 나가사키가 세계 평화를 외치는 이유가 이해되었다. 나 또한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가 되기를 바란다.</p>	<p>2023년 6월 28일 (instagram)</p> <p>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곳...보면서 지금 현재의 잔인한 전쟁들이 생각나면서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졌다. 왜 나가사키 사람들은 그토록 전쟁을 반대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해가 어마어마했다고 늘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보는 것과는 확연히 달</p>

랐다. 한 인간의 생을 뒤바꿔 놓는 전쟁이라는 참사.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것이며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被爆者の声に触れる 韓国の大学生80人、長崎訪問 / 長崎
 毎日新聞 | 2023/7/1 地方版 有料記事 354文字

韓国の大学生約80人が、長崎市の原爆資料館や韓国原爆犠牲者慰霊碑を訪れ、被爆者から体験を聞いた。外務省の「対日理解促進交流プログラム」の一環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禍を挟み、訪問は2019年以来4年ぶり。

資料館で原爆の模型や被害を示すパネルを見学した後、13歳で被爆した丸田和男さん(91)の講話を、通訳を交えて約45分間聞いた。母を亡くし、自身も家屋の下敷きになって背中中大けがをした丸田さんの体験談に、学生らはメモを取ったり、うなずいたりしながら耳を傾けた。

2023년 6월 28일 (NHK)
 ‘문화교류 한국 대학생 원폭피해에 대한 이해 심화’ 원폭자료관 시찰, 피폭체험 강화(講話) 모습을 소개.

2023년 7월 1일 (마이니치 신문)
 ‘피폭자의 목소리에 접하다 한국 대학생 80명, 나가사키 방문’ 피폭체험 강화(講話) 모습을 소개.

6. 보고회에서 의 귀국 후 액션플랜 발표

(방문지 : 도쿄도, 가나가와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후쿠오카현)

【방일중의 배움】
 직접 대학교를 방문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공감하며 세상에 대한 여러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테마에 관한 방일중 발표】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방문을 통해 원폭 피해의 실상과 위험에 알게 되었고, 원폭 피해자의 강연을 통해 나가사키의 아픈 과거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액션 플랜】

【방일중의 배움】
 일본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타국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부터 먼저 알고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테마에 관한 방일중 발표】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방문과 피폭체험강연을 통해 이런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p>-현지에서 사귀 일본인 친구와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언어교환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양국을 방문하여 함께 만나 상호 간 우정과 친목 증진하기</p> <p>-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분들의 강연과 자료관을 탐방하여 얻은 평화에 대한 교훈을 정치외교학 수업 과제에 녹여내기</p> <p>-일본어 동아리에 들어가 일본어 학습을 계속하기</p>	<p>【액션 플랜】</p> <p>양국 관계 개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이번 방일연수 사진을 활용하여 SNS 업로드나 방문 기관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공부를 꾸준히 하며 일본 교환학생, 파견교사 제도를 알아보고 9월에는 JLPT 에 도전할 것입니다.또한 한국에 유학 예정인 일본 대학생들과 교류를 계속할 것입니다.</p>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